

atelierJAK

국내 해외 ARTIST 아뜰리에젝

정장영 1973년생 한국 & 안드레아스 가이셀하르트 1974년생
독일

2025 / 08 / 12



<Indescribable Scenes 14s> 에폭시 레진 큐브, 슬라이드에
아크릴릭 페인팅, 스테인리스 스틸 33×65×120cm 2023

아뜰리에젝의 작품은 인간의 상호 작용과 교차점을 관찰하는 '사이의 공간'을 탐구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매체를 넘나들며, 현상, 현실, 그리고 실재들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시각화한다. 즉 디지털 영상작업에서 발견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과 실재 사이의 차이를 예리하게 포착한 후, 일반적인 인식 체계의 불확실성과 존재의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조각, 드로잉, 설치와 같은 고전적인 예술도구를 이용한 작품으로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아뜰리에젝은 한국인 정장영 작가와 독일인 안드레아스 가이셀하르트 작가가 2008년 결성한 콜렉티브 프로젝트 그룹으로, 독일 노이슈타르트 쿨투어 프로그램(2021~2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퍼블릭아트 프로그램(2017) 등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과 미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시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로이틀링겐미술관에서 개인전 <What You Get Is What You See!>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